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개선 및 원·하청 근로자 차별 해소 실천 우수기업 탐방'은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으로 지역발전과 갈등 해결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안정에 기여함을 인식하도록 집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개선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원·하청 근로자 차별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소명요요 신성하게 주어진 노동권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야 할 수 없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같은 사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찾아간다. (편집자주)



# ‘화순군민을 가족처럼’...대중교통 서비스 혁명을 꿈꾼다

## (주) 화순교통

운수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주)화순교통.

보유차량 52대로 전남지역 군내 버스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화순 군민들의 발이 되고 벗이 되어 지역민 운송이라는 사명을 수행해 온지 30년.

화순지역 군내버스로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인력운송업체로서 화순 전지역과 광주 시내 2개 노선을 운송권역으로 하고 있다.

군내버스 운송분담률 100%, 그만

큼 책임과 사명감이 클 수밖에 없다. 택시 등의 운송수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화순교통의 몫이기 때문이다.

1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몸담고 있는 화순교통은 고용안정과 근로개선에 앞장섬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업의 특성상 연중 무휴로 화순 권역 주민들의 안전한 여행과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단 한 사람의 고객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업계 우수기업으로서 모든 면에

서 최고의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데 고객을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여기며 생명존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무사고 안전운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고객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친절하게 모시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차된 시간을 엄수해 제 때 고객을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모시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것을 고객과의 약속이자 서비스사업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 100% 무결점 예방정비로 고장에

###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개선으로 안전한행 최우선

### 원활한 노사협력사업으로 최상의 화합분위기 조성

다른 불만을 최대한 없애고 고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객과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수업이라는 특성상 종사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안전운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배려는 직원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종전지에 목욕시설을 갖춰 여름철에 기사들이 샤워를 하고

운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깔끔하고 상쾌한 모습으로 고객을 접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는가 하면 항상 사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다.

월 19일 민근제 실시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근로시간을 단축해 기사들의 피로도를 낮춰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늘날 화순교통이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노사가 하나

되는 등 가족같은 분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회사의 발전이 곧 조합원의 발전이라는 굳은 믿음이 아래 일차간 결해 매진하고 있다.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친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가 하나뿐인 정미 미래로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화순교통은 오늘날 화순군민들의 발이 되어 지역 구석구석을 힘없이 누비고 있다.

신봉우 기자



## “친절과 안전이 회사 존폐 가름한다” 가슴에 새겨

### 이철우 상무

▶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개선은 잘 이뤄지고 있는가?

- 언제부터든 운전원이라는 직업이 3D업종 중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근무환경이나 임금이 아주 열악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언론을 통해 장년실업률 증가라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업종은 일자리가 많은데 리는 한탄을 하게 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평균 근무시간이 9년으로 그나마 장기근속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근로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이 뒷받침이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 노사의 관계는 원만하다고 생각하나요?

- 저희 회사는 1987년 10월 1일 창사 이후 30년 동안 단 한차례의 노사분규도 없는 사업장이다. 한때 노노 간의 갈등으로 노사관계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100여 명의 종사원들이 모이다 보면 의견도 다르고 갈등도 많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 인내를 갖고 대화와 타협을 한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 노사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신뢰일 것이다. 우리 회사는 종사원들과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노사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을 자주 갖고 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가족적인 분위기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년 5월에는 체육대회 겸 야외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산행과 안전운전 체험 활동 등을 같이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

- 우리 회사는 1일 만 오전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 현장에서 승객을 대하는 종사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면 이용 승객은 줄어들 것이며 결국 회사의 존폐가 친절과 안전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항상 내 가족과 함께 운행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 교육과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노동조합에 당부 또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현 지부장님 체제 이후 노노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노사관계가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와 종사원 모두에게 발전과 희망을 주신 점 감사히 생각한다. 앞으로도 화합한 노사관계가 지속되어 어려운 난관들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 “노조가 회사발전의 견인차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

### 조병수 노조 지부장

▶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 회사나 노동조합 모두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번기 이루어지는 노사협의회는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화로 해결하고 있다. 10여년간 노동조합을 이끌어 오면서 느꼈던 사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불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수시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노조를 이끄는 데 있어 소신이나 원칙이 있다면?

- 노동조합을 이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더욱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 두가지의 원칙으로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다.

▶ 조합원 단합을 위해하고 있는 일은?

- 소규모의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야외행사 및 등반대회를 사측과 함께 전차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수 활동 참여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불문 매 행사마다 소정의 선물도 준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애경사 시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의 정도는?



-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사가 화합을 해야만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나누었던 고충이나 기타건의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관철시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야외행사나 등반활동 등에도 사무직원들까지 동참해 줌으로써 행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소개한다면?

- 전 조합원이 결속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존의 동호회 활동이나 야외행사는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며 투명성 확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일처리를 제 자신과의 약속 또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더불어 원만한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봉우 기자